



# 한국어나운서클럽회보

2018년 3월 15일

제 29 호

• 발행인 : 임국희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어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4278-0450, 070-7501-3842

## ‘올해는 더 많은 일을 하려 합니다’

2018년도 임원 등기 등 의결 사항 변호사 공증으로 처리  
임 회장, ‘선배 존경 후배 사랑’ 클럽 정신 영원할 것입니다



(뒤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전찬희 이재원 이현우 양진수 정도영 성경환 권혁화 이계진 김상준 김규홍 이후재 정홍숙 이혜옥 이세진 전우벽 정연호 주건국 권장수 남궁미 차기정 노영인 정영희 윤희자 조석영 송현식 박선영 배유선 황인우 박민정 박찬숙 성선경 박중세 전영우 황우겸 임택근 임국희 배덕환 맹관영 이성화 이영호 김상호 황선숙 신동진 구은영 채영신 강재형

3월 6일 여의도 50명 참석

(사)한국어나운서클럽 2018년 정기총회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6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임국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 ‘선배 존경, 후배 사랑’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어나운서클럽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니 뿌듯하다.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나자.”라고 말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2017년엔 2월에 사이버 주소록 제작, 4월 헤이리 나들이, 6월 제3회 황금메아리상 시상, 9월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MOU 체결과 황우겸, 전영우 고문 회고록 출간 기념회, 12월 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아나운서클럽상 시상 등이 있었다. 2018년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지난 2월 22일 사단법인으로서 방송위원회에 아나운서클럽의 운영 사항을 보고했다. 감사 보고 들어 보자.”라며 마이크를 김상준 감사에게 넘겼다.

김상준 감사는 ‘모든 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감사 보고에 이어, 한국어나운서클럽회보 발행 과정을 소개한 후 7주년을 맞이까지

애쓰 황인우 편집장을 비롯해 김규홍, 류지현, 박민정, 이현우, 이형균, 이혜옥, 채영신 편집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홍숙 회원의 시 암송 순서에서 비교적 긴 편인 유안진의 ‘자화상’을 들은 후 박민정 사무총장은 “치매를 예방하려면 시 암송을 하라.”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2018년도 정기 총회 의결 사항이 있어 이 자리에 변호사 한 분을 초대했다. 등기상의 이사 임기가 3년이라 올해 등기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사무총장으로서 회원들의 인감증명을 떼러 다녔는데 의사록을 작성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공증을 받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의 주선으로 법무법인 을지 대표 변호사이자 물망초인권연구소 소장인 이재원 변호사(2면 사진 둘째줄 박선영 회원 옆)를 모셨다.”라고 초대 손님 소개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경북 포항 흥해 출신이라 사투리도 쓰는데, 유명한 아나운서들을 많이 만나게 돼 영광이다. 아나운서클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이후재 회원 세종문학상 수상

수상작 제4시집 <뼈꾸기의 나들이>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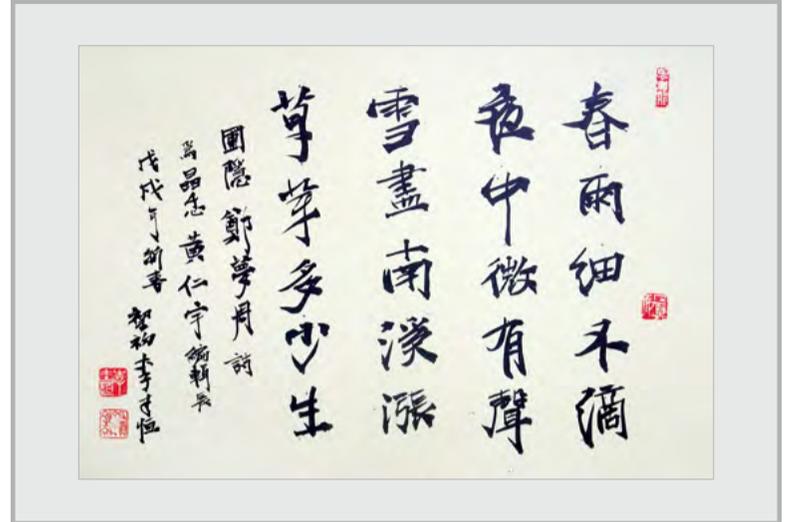
이후재 회원이 세종문학상을 수상했다.

이후재(전 KBS) 회원이 1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문학신문사 주최 제9회 대한민국 문학대축제에서 제4시집 <뼈꾸기의 나들이>로 세종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회원은 상을 받고 “한글을 창제하

신 성군의 이름을 붙인 상이라 특히 맘에 와닿는다.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1970년 아나운서로 입사, 1974년 PD로 전직 후 원주방송국장을 지냈고 2001년 퇴직했다. 2006년 <스토리문학>으로 등단, 2009년 <맘 흘리는 산>, 2012년 <거북 바위가 묻는다>, 2015년 <새 날은 새들이 쫓는다>에 이어 작년 연말 <뼈꾸기의 나들이>를 출간했다. 관련 인터뷰 8면 쯤인



창간 7주년 기념 신춘 휘호

눈초 梨初 이규항李圭恒

춘우세부적春雨細不滴  
야중미유성夜中微有聲  
설진남계창雪盡南溪漲  
초아다소생草芽多少生

봄비 가늘어 땅에 떨어지지 않네  
한밤중에 어디선가 무슨 미세한 소리 들리는 듯  
눈이 다 녹아 남쪽 개울물은 넘쳐흐르고  
새 풀과 싹들은 여기저기에서 푸릇푸릇 돌아나는구나  
- 포은 정몽주 춘흥시春興詩 이규항 역譯

작가의 말

한시漢詩인데도 현대적인 작품인 듯하여 예전부터 좋아하는 시다. 시의 이미지가 그림이 떠올라 시중유회詩中有畫라고도 한다. 서예는 젊었을 때 여초黎初 김응현 선생께 자고저字高低만 철저히 배우고 붓을 잡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눈으로만 써보다’가 모처럼 용기를 내 붓을 잡아보았다. 습작이지만 그 동안 애쓰 편집장에게 기념으로 드린다.



한국중고탁구연맹 회장 손범규 아나운서

## 한국 탁구 중흥 이를 꿈나무 키운다

선수들의 해외 오픈 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  
이모 숙모도 탁구 국가대표, 아들은 중고탁구 우승 선수



1월 3일 천안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보람상조 선수홍 대표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는 손 회장(왼쪽에서 3번째)

한국어나운서연합회 제14대 회장을 지낸 손범규(SBS) 아나운서가 한국 탁구 중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손범규 아나운서는 2016년 한국중고탁구연맹 회장 취임 후 작년 6월 제 27회 아시아 주니어(18세 이하 고등학생) & 카데트(15세 이하 중학생) 탁구 선수권대회, 7월에 ‘보람상조배 제55회 전국남녀중고학생종합탁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2년 연속 보람그룹의 후원을 받아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설 연휴에도 일본 오사카 오픈대회를 참관한 손 회장은 “일본에서는

ITTF(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국제탁구연맹) 투어가 아닌데도 2,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반면에 한국은 초등부터 실업까지 등록 선수가 1,500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 탁구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중고탁구 최강전을 신설하고, 모든 대회의 TV 중계는 물론 선수들의 해외 오픈 대회 참가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월 25일부터 3일간 한국중고탁구연맹, 안산시 주최로 안산시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2018 안산시 제2회 한국중고등학교 탁구 최강전’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손석현(17 아산고 2) 선수는 그의 차남이다. 이모나 숙모가 모두 국가 대표 선수로 활동했기에 어린 날의 추억이 그를 탁구 캐스터로 이끌었고, 예정보다 두 달 빨리 태어난 둘째 아들의 건강을 위해 탁구 선수를 시키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 캐스터로서보다는 연맹을 이끄는 행정가로서 한국 탁구 발전에 기여하는 손범규 아나운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다음 정례 모임은 6월 5일(화) 오후 6시 30분 열빈

### 2018 정기 총회 시모저모

## 새 봄에 만나니 더욱 즐거워~



황우겸 고문은 “아나운서들은 시간과 공기, 양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도 우리 아나운서들을 법률적으로 도와주신다니 고맙다. 이 변호사를 명예 아나운서 겸 자문 변호사로 모시자.”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현역들의 올림픽 활약상이 전해졌다. KBS를 대표해 참석한 이영호 아나운서는 “직접 중계한 스노보드에서 이상호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다. KBS에서는 모두 10명이 참여해 평창 올림픽을 중계했다. 파업 종료 후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 같아 뿌듯하다. 이번 올림픽 중계는 KBS의 저력을 확인한 기회였다. 선배님들의 밑거름이 있어 잘 치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MBC 강재형 국장은 “2013년 12월 12일 한국아나운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을 마치며 'I'll be back!'이라 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7년 12월 12일, 아나운서국장으로 복귀해 정말 기쁘다. 변창립 부사장과 김범도 전 협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라고 말하고, 동석한 황선숙 부국장, 김상호, 신동진 부장, 차미연 협회장, 구은영 아나운서를 소개했다.

이에 MBC 아나운서국장 출신이자 tbs 대표를 지낸 성경환 회장은 “과거 찬란한 시절을 보냈던 선배

님들처럼 길게 잘 나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임택근 고문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견배!”를 제안했고, 작년 한글날에 문화 포장을 받은 전영우 고문은 “올 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대원출판)을 발간 예정이다. 아나운서로서 스피치, 즉 화법을 공부하다 범주가 윤리학, 철학으로 이어졌다. 고대 그리스의 변론술, 그제 레토릭, 수사학이다. 정치, 변론, 철학이 삼두마차! 우리가 공부한 분야를 인정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방송 50주년을 맞은 박찬숙 부회장은 “작년 12월 초까지 경기FM에서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를 진행했다. 시절의 적합한 언어로 50년간 방송해온 것을 돌아보며 이제 혼자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계진 부회장은 “앞서 하신 선배님들과 똑같이 때문에 '미투'입니다.”라고 말해 큰 웃음을 주었다.

김규홍 부회장은 “오늘 참석하시겠다던 전웅덕, 최만린 고문이 건강상의 문제로, 김동진 고문과 차인태 부회장은 갑작스런 집안일 때문에 불참했다. 그 안타까운 마음 헤아리며 참석해주신 임택근, 전영우, 박종세 고문께 큰 박수 드리자.”라고 말했다.

박민정 사무총장은 매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올라

오는 권장수, 주건국 회원에게 감사 인사와 박수를 보낸 후 참석자 모두를 소개했다.

오랜만에 함께한 권혁화 회원은 MBC사우회 한문동호회를 통해 한문 공부를 시작, 고전번역원 졸업 후 사우회 한문동호회 2대 훈장으로 강의하며 금천구 한문교실, 평택에서 매주 목요일 한문교실 강의 중이라고 근황을 소개했다.

2018년도 정기 총회는 박 사무총장이 “새 봄을 맞아 만나게 돼 반가웠다. KBS와 MBC에서 보내주신 화환이 더욱 돋보이는 하루였다.”라는 인사와 “즐겁고 뜻깊은 시간 보냈다. 늘 변함없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임국희 회장의 폐회사로 막을 내렸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권장수, 권혁화, 김규홍, 김상준, 남궁미, 맹관영, 박민정, 박선영, 박종세, 박찬숙, 배덕환, 배유선, 백연숙, 성경환, 성선경, 송현식, 양진수, 윤희자, 이계진, 이성화, 이세진, 이혜옥, 임국희, 임택근, 이현우, 이후재, 전영우, 전우벽, 전찬희, 정도영, 정연호, 정영희, 정홍숙, 조석영, 주건국, 차기정, 채영신, 황우겸, 황인우, 이영호(KBS), 강재형, 구은영, 김상호, 신동진, 차미연, 황선숙(MBC)

그리고 초록회 노영인, 이재원 변호사, 사진 촬영에 KBS사우회 박재현 편집위원이 함께했다.

회 | 원 | 동 | 정

### 분당 모임 새해 첫 만남의 자리, 어느 새 12년간 73번 만났다

'분당 모임'은 지난 1월 9일 새해 첫 만남의 자리에 서울 거주 박찬숙 부회장과 채영신 편집위원, 수원 거주 송지현 앵커도 초청해 더욱 화기애애하고 정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다시 우리 공동체를 자랑하자면, 분당 모임은 성남시 분당과 인근에서 살고 있는 아나운서 선후배 10여 명이 분당의 한정식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나운서 출신 중 우리나라에서 최고 원로이신 황우겸 선배님을 비롯해 박종세, 김인권, 배덕환, 맹관영, 조길자, 최평웅, 송현식, 김규홍, 이계진, 박민정 회원 등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료들의 소식을 주고받고 현역 아나운서들의 활동에 격려를 보내며 격월로 만나고 있다. 또한 분당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때때로 초대해 반가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모임의 발단은 아나운서클럽의 창설자 황우겸 고문님이 2006년 여름 분당에 거주하는 몇몇 후배들을 불러내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엔 김규홍, 송재익, 한선교, 최선규 등 5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일부는 타 지역으로 이사하고 새로 이사를 오는 분들이 늘어나 현재 10여 명이 격월로 정답게 만나고 있다.

분당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례화 된 지 어느덧 12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른 적이 없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아나운서 출신 선·후배간의 정이 그만큼 두텁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 구수를 맞이한 황우겸 대선배님은 여전히 힘차고 기쁜 음성으로 출중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서울여상 재단인 문영학원 이사장 박종세 선배님은 늘 다정다감하셔서 만날 때마다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따뜻한 미소의 김인권 선배님은 이 모임에 올 때마다 행복하다고 자랑하시는가 하면, 종종 직접 담긴 매실주나 포도주를 들고 오는 최평웅 선배님의 정성이 즐거움을 보태 준다. 아나운서클럽회보 제

호 작가 맹관영 선배님의 호탕하고 구수한 말솥씨가 분위기를 생기 있게 하고, 이계진 전 의원의 국보급 재치와 유머가 웃음꽃을 피우게 한다.

19년간 호주서 살다 영구 귀국한 배덕환 선배님은 고국의 모든 생활이 즐겁기만 하다며 모임에 빠놓지 않고 참석하신다. 3년 전 동참하게 된 멋쟁이 조길자 선배님은 10여 년간 남미 외교계에서 다져진 매너와 미소로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들어 준다. 가수 케니 로저스 같은 모습의 송현식 선배님은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한 후 이 모임에 남다른 정을 쏟고 있다. 또한 이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막내 박민정 아나운서클럽 사무총장은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특히 한때 유명세가 있던 아나운서들의 모임이다 보니 오찬 장소에서는 주변의 중·장년층으로부터 종종 반가운 인사도 받곤 하는데 그럴 때면 역시 아나운서란 어느 곳에서든 인정받는 특별한 직업임을 실감하게 된다.

분당 모임은 아나운서 출신이면 무조건 환영하니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민정 박종세 황우겸 채영신 조길자 송현식 최평웅 김규홍 송지현 박찬숙 맹관영

출신 방송사를 불문하고 참여를 원하면 총무에게 연락만 하면 된다. 2018년에도 많은 선·후배 동료 아나운서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내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회원들을 잘 챙긴다고 모두들 나를 칭찬하며 연락 장교라고 불러주니, 즐거운 마음으로 장기 집권을 해야만 할 것 같다.

글/ 김규홍(전 KBS) 부회장<010-5234-7472>

### MBC아카데미 스피치 최고위과정 원장으로서 제2기 교육 개강



차인태(전 MBC) 부회장  
MBC아카데미가 '제2기 MBC 스피치 최고위과정(원장 차인태)'을 연다. 4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화요일마다 화합과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교육, 1 대 1 맞춤형 실습 등으로 진행된다.

###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취임



유정애(전 KBS)  
12월 27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 IPTV방송협회 이사회와 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1월 1일 회장으로 취임해 앞으로 2년간 협회를 이끌게 되었다. 유 회장은 1989년 입사, <열린음악회> 등을 진행하다 1997년 퇴사했으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말하기>를 가르쳤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국민참여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 드림콘서트 향상음악회 출연



이현우(전 MBC)  
2월 24일 (사)한국생활음악협회가 주관하는 드림콘서트 향상음악회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했다. 5년 전부터 아코디언을 배워 강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연주회와 동호회 활동은 물론 복지원

요양시설 등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아코디언은 클라리넷, 피콜로, 오보에, 하모니카, 반도네온, 비올라 소리 등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어 '내 품안의 오케스트라'라 불린다. 이현우 편집위원은 '삶의 풍성함을 위해 악기 하나쯤은 다루어 보라'며, 왼손으로 바람을 조절해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아코디언 배우기를 주변에 적극 권하고 있다.

### 부부가 연극 <루터>에 함께 출연



김정근(전 MBC)  
이지애(전 KBS)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연극 <루터>(연출 최중률)

를 통해 연극배우로 데뷔했다. 루터 역에 배우 정선일을 비롯해 정욱, 최선자, 정영숙, 심양홍, 한인수, 이경영, 이일화 등이 참여했다.

### 프리랜서 선언, IOK와 전속 계약



김환(전 SBS)  
1월 30일 아이오케이 컴퍼니의 TN엔터사업부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김환 아나운서는 2007년 15기로 입사해 <좋은 아침>, <생방송투데이>, <잘 먹고 잘 사는 법>, <자기야-백년손님>, <정글의 법칙>, <런닝맨> 등에서 활약하다 1월 9일 퇴사했다.

### MBC OB 아나운서 신년 인사회



현 차인태 회장과 오남열 초대 회장

2월 22일 오후 강남구 학동 남포면옥에서 신년 인사회 겸 정례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차인태 회장을 비롯해 오남열, 원병희, 조석영, 정연호, 김충식, 임주완,

양진수, 이현우, 고창근, 조일수, 박유명, 이용석, 김창욱 회원 등이 참석해 안부를 전하고 현역 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남열 초대 회장의 주도로 2003년 5월에 시작된 MBC OB 아나운서 모임은 현재 상·하반기 두 차례 만나 친분을 나누고 있다.

### 2017 MBC 연예대상 수상



전현무(전 KBS)  
12월 29일 열린 '2017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나 혼자 산다>로 대상을 받아 타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이 연예대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전 회원은 상을 받고 "출연진의 순수한 말과 행동이 시청자의 마음에 와 닿은 것 같다. 그동안 예능은 웃기고 자극적이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KBS에서 활동한 전 회원은 현재 프리랜서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 방 | 송 | 가 | 소 | 식



## 파업 종료 후 방송 정상화 과정 진행 사장 후보자 전 PD연합회장 양승동 선정



**약력 :**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89년 KBS 공채 16기 PD로 입사
-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대표
- 제21대 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
- KBS 사원행동 대표
- KBS 부산총국 편성제작국장
-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 위원

KBS 노조가 지난 해 9월부터 '고대영 사장 해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개월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1월 23일 KBS 임시 이사회에서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고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에 따라 약 70명의 아나운서들도 142일 만인 1월 24일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방송 정상화를 위한 새 사장 선임 과정에서 양승동(57) 전 PD가 제23대 KBS 사장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KBS 이사회는 2월 26일 임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최종 면접 후, 1989년 KBS 공채 16기 PD로 입사해 <역사스페셜>, <세계는 지금>, <추적60분> 등에 이어 현재 <KBS스페셜>을 연출하는 양승동 PD를 사장 후보자로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월 20일 사장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13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아나운서 출신으로서 기자로 전직해 파리 특파원, 글로벌전략센터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정욱(전 KBS), PD 출신 양승동, 이상요 후보 등을 상위 3명의 후보자로 압축했다.

이들은 2월 24일 개최된 정책 발표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 KBS 정상화 및 미래 전략 등에 대한 비전 발표와 상호 질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청자 14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단의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쳤고, 결과는 이사회 60%, 시민 자문단 40%의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책 발표회는 myk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KBS 정상화를 위해 싸워온 이력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한 양승동 후보자는 정책 발표회에서 그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공영방송의 역할 복원을 주창했다. 잃었던 권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KBS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프로그램 제작 과정과 환경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고 시민들에게 KBS 플랫폼을 과감히 개방해 미래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동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된다. 2014년 5월 개정된 방송법은 KBS 사장 선임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가 2월 26일 '사장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함에 따라 국회 인사 청문회와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사장에 취임하면 임기는 고대영 전 사장의 잔여 임기인 2018년 11월 23일까지다.

한편 고대영 전 사장은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 지역 파견 근무자, 휴직자 업무 복귀 이형걸, 이성민, 김보민 등 서울 근무 시작

아나운서실에서는 이형걸, 이성민 부장과 막내 아나운서들이 지역 파견 근무를 마치고 아나운서실로 복귀했다. 또 김보민 아나운서도 3년간 김남일 선수 아내로 일본에서 지내다 휴직 후 복직했다.

## 시청자와 소통 확대 SNS 계정 개설, 팟캐스트 <아나운서공화국> 제작

아나운서국이 3월 2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었다. MBC 아나운서들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instagram.com/mbc\_announcer\_official)을 통해 '다시, 좋은 친구 MBC 아나운서'를 기치로 내걸고 활동 소식과 근황을 알리며 시청자와 더 활발히 소통할 계획이다.

한편 MBC 아나운서는 1월 29일, MBC 사옥 M라운지에서 MBC 아나운서 팟캐스트 <아나운서공화국> 개설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독립 제작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아나운서공화국>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MBC 최승호 사장과 김민식 PD였으며, 공식적인 첫 출발인 만큼 건국 이념, 소통 헌법 등의 국가 건립 과정 내용을 담은 스페셜편도 함께 공개했다.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서 2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한 <아나운서공화국>은 매주 금요일,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업로드 되고 있다.

## 전종환, 기자 전직 6년 만에 복귀



2005년 입사, 2011년 기자로 전직했던 전종환 아나운서가 MBC 파업이 끝난 후 아나운서국으로 복귀했다. 전종환 아나운서는 2월 5일부터 표준 FM <그런 이렇습니다 전종환입니다>에 이어 10일부터 평창 올림픽 하이라이트 특집방송도 진행했다. 한편 전종환 아나운서는 문지애(전 MBC) 회원과 사내 커플로 주목을 받았다.

## 허일후 <아침발전소> 새 진행자로 발탁

허일후 아나운서가 3월 2일부터 새 교양 프로그램 <아침발전소> 진행자로 발탁되었다. 과거 <불만 제로>의 진행을 맡았던 그와 함께 방송인 노홍철이 호흡을 맞춘다. <아침발전소>는, 생방송이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 사고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아침 풍경을 180도 바꿔놓겠다. '팩트체크'를 넘어 '관점'이 부여된 전달을 지향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아침발전소>는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만날 수 있다.



## 김준우, 14개월여 만에 아나운서팀 복귀



OBS 아나운서협회장인 김준우 아나운서가 지난 12월 15일 아나운서 팀으로 복귀했다. 김 아나운서는 대기 발령, 교육 발령 등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1년 2개월여간 아나운서 팀을 떠나 있었다.

## 최지혜 <특집 경기도 정책을 말하다> 진행

그동안 <경기도 정책을 말하다>를 진행하며 일반 시민이 접하기 힘들었던 도도 주간 정책회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온 최지혜 아나운서가 12월 14일 <특집 현장토크, 경기도 정책을 말하다>를 통해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을 만났다.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정책 추진 과정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세세하게 담아내,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의 장 마련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위해 기부 배성재 1천만 원, 박선영 400만 원



배성재 아나운서가 12월 20일 경기도 광주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피해자 할머니를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다. 3.1운동을 주도한 신영호 선생의 외손자인 배성재 아나운서는 2018년 3.1절 기념식 방송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15일 나눔의 집을 찾아 최고령 정복수 할머니와 이옥선 할머니 등을 위로한 박선영 아나운서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12월 23일 400만 원을 후원해 훈훈함을 보태주었다.

## 유혜영, 김범주 기자와 <모닝와이드> 진행



1월 15일부터 보도국 김범주 기자와 함께 <모닝와이드>를 진행 중이다. 슈퍼모델 출신 유혜영 아나운서는 '한밤의 TV연예' 리포터로 활약하다 2010년 입사했다.

## 김윤상, 주말 드라마 <착한마녀전> 출연

김윤상 아나운서가 3월 3일 오후 9시에 첫 방송된 SBS 새 주말드라마 <착한마녀전>에서 연기자로 첫선을 보였다. 기존 아나운서의 역할이 뉴스 앵커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김윤상 아나운서는 그룹 파티 진행자를 맡아 숨겨왔던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김용신, 아나운서 부장으로 승진



2018년 1월 1일자로 김용신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부장으로 승진했다. 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2년간의 임기를 마친 김은영 아나운서에 이어, CBS 아나운서부를 이끌게 된 김용신 부장은 "일을 맡아야 할 때가 오면 즐겁고 감사하게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CBS FM <신지혜의 영화음악> 20주년



1998년 2월 2일 시작된 <신지혜의 영화음악>이 청취자들의 큰 호응 속에 20주년을 맞았다. 신지혜 아나운서가 제작 진행을 맡아 전문성을 과시하며 2004년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신영음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방송 콘텐츠의 외연을 확장시킨 <신지혜의 영화음악>은 20주년을 맞아 기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 신입 아나운서 5명 채용

CBS 신입 아나운서 공개 채용에서 5명이 합격해 수습 교육을 받고 있다.

CBS 본사 서연미, 채선암, 강원CBS 서정암, 대구CBS 김나영, 청주CBS 이한솔 등은 수습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 정식 발령을 받아 방송에 투입될 예정이다.



### 근속 20년 정연주, 후배들이 감사패 증정

입사 20주년(2017년 12월)을 맞은 정연주 아나운서에게 후배 아나운서들이 감사패와 황금열쇠를 전달했다. 후배들은 이날 지난 20년간 활기찬 목소리로 청취자들과 만나며 후배들을 이끌어준 선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정연주 아나운서는 tbs TV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 객원 아나운서 박주현 선발

2017년 12월 tbs 공채 객원 아나운서 모집을 통해서 박주현 아나운서가 뽑혔다. 2개월의 교육을 마친 박주현 아나운서는 현재 tbs TV <네트워크>, tbs FM 매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 한경은 제주, 백두현 포항 지사장 발령, 박광현 서울 편성국장 임명, 송옥석 서울 복귀



한경은



백두현



박광현



송옥석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다. 서울극동방송 한경은 편성국장이 제주극동방송, 백두현 아나운서가 포항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각각 임명되었다. 또한 박광현 아나운서가 서울극동방송 편성국장을 맡게 되었으며, 극동아나운서협회장을 지내고 울산에서 근무하던 송옥석 아나운서가 서울로 복귀했다.

### <중독> 다큐 발표와 중독회복 공개방송

2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송옥석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중독> 다큐멘터리 작품 발표회와 중독 회복 공개방송이 열렸다. 장찬희, 공나현 아나운서가 함께 기획, 제작한 다큐멘터리 청취와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창사 30주년 맞아 특집방송 진행



1월 1일,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창사 30주년을 맞아 <특집 생방송 - 평화가 그대와 함께>가 방송되었다. 8시부터 9시까지 김지현 아나운서가 신달자 시인, 알래스카에서 사목 중인 김학현 신부 등의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9시부터 11시까지 <FM 음악공감>은 김슬애 아나운서가 맡았다. Facebook live를 통한 <11시가 좋다>의 신의석 아나운서(사진)는 한복을 입고 30주년과 새해를 알리는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김슬애 아나운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대에게 평화를, 장한진 김슬애입니다>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 이나래 아나운서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우리는 코이노이아>를 통해 각 교구장의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민 아나운서는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는 <음악이 있는 저녁풍경>에서 가수 정동하, 김형중, 강인봉과의 전화 연결로 신년 인사와 축하 메시지를 소개했다. 가톨릭평화방송은 창사 30주년을 맞아 회사 창립일인 5월 15일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김슬애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진행



김슬애 아나운서가 1월 17일에 서울 명동 패밀리아채플에서 열린 <제12회 생명의 신비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2006년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생명과학분야와 인문사회과학분야 연구자 3명과 활동분야 단체 1곳 등 인간 생명 존엄성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과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우리말 다듬기 눈초 이규향의 발음 이야기 19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 부사副詞는 언어의 조미료이다

- 부사 「완전」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



이규향  
• 고려대 국문학과 졸업  
• KBS 아나운서 실장  
• 한국어문화 한자급 취득자  
• 음성언어교육 강사  
• 문교부 국어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부사副詞(副 : 다음)는 명사 다음으로 어휘가 많은 품사라는 뜻이 아닐까. 평소 필자의 생각이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부사의 어휘가 뜻밖에도 1,2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다. 우리나라의 전 연령층에서 「완전 좋다/좋다/맛있다」라고 한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한국어에는 한 가지 부사밖에 없게 된 현실이 아닌가.

손남익 교수(강릉원주대)는 「우리말의 매력과 장점은 부사 덕분이며 부사가 다양해야 감정이나 모양의 미묘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는 「굉장히」가 단일 부사로 「굉장히 예쁘다/작다/좋다」처럼 쓰였다. 당시 방송 진행자들의 애용(?) 횡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10초에 3번, 심지어 5분에 20여 번이나 되었다.

「완전」이 부사로서 문법과 어법상 어긋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어에도 「Well/Better/Best」처럼 원급原級, 비교급, 최상급이 있어 상태와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완전」은 최상급이다. 2) 부사는 언어의 맛을 내게 해주는 조미료와 같다. 음식의 조미료는 고추/후춧가루, 고추장, 된장, 국간장, 양조간장, 소금, 참기름, 깨, 식초 등 다양하다. 겨울철의 별미인 메밀묵에는 들기름, 북어국에는 참기름, 갈비탕에는 국간장, 설렁탕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제 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단조로운 부사 「완전」의 언어생활 태도는 음식의 참맛을 모르고 사는 삶과 같다 하겠다. 3) 「완전」을 어린이가 썼을 경우, 가정교육이 떠오르고, 청소년과 중년의 경우는 품위가 없고 경박해 보이며 노년층에게는 세월을 헛살아온 듯하여 딱한 생각 드는 것이 생각 필자의 사견이다. 4) 과도한 조미료의 사용은 음식의 맛에 역효과를 주듯이 필요 이상 「완전」의 빈도수에서는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상대의 말에서 언제 「완전」이 튀어(?) 나올까를 생

각하게 되어 메시지 전달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완전」의 「대체 부사」로는 어떤 어휘가 있을까? 이제는 거의 사어死語가 되어버린 「정말, 아주, 꽤, 훨씬, 상당히, 대단히, 썩, 썩, 무척, 엄청나게, 조금, 매우, 참, 적잖이, 약간, 제법」 등이다. 품사 중 부사 한 가지가 이리할진대 그 밖의 한국어의 현실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방송 진행자들은 언중言衆에게 마땅히 언어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방송인 중에는 방송 언어 교육을 받은 아나운서 또는 아나운서 출신 프리랜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민의 음성 언어 수준은 방송 언어 수준과 닮아 있기 마련이다. 방송에서 아나운서 기피 현상은 KBS의 남산 시절부터였다. 그 한 예가 전문 MC 10명 모집이었는데, 완전(?) 실패하였다. 방송 야사로 남기고 싶다.

1980년대의 단일 부사 「굉장히」가 「완전」으로 바뀐 지속적인 기이한 현상은 바로 방송 적폐로 방송 간부, 제작자, 진행자 모두의 책임이다. 언젠가 이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국민 누구나 방송 출연자는 될 수 있으나 방송 진행자는 될 수 없다. 자격증 시대가 아닌가.

KBS 전직 모某 사장의 20여 년 전 신문 특별 기고문이 떠오른다. 「방송의 개혁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송인들 자신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의미심장한 글이었다. 근자에 방송 진행자 블랙리스트 가운데 아이로니컬하게도 필자의 눈에는 애초부터 방송 진행자로서 부적격자였던 「가짜 안중근」과 「가짜 유관순」 같은 사람도 보였다.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적폐청산이 혁명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차제에 참으로 모처럼 방송계에도 작은 변화라도 있기를 기대해본다.

##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하나 된 열정’이란 구호 아래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2018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인 92개국 2,920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 전 종목에 146명이 출전해 썰매, 스키, 컬링에 이르기까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등 총 17개의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남북한이 단일팀(한국 23명, 북한 12명) ‘Korea(COR)’로 참가해 올림픽 정신을 구현했고, 한국의 첨단 기술을 세계에 과

시한 ‘스마트 올림픽’이었다.

개폐회식 사회를 맡은 배기완(SBS) 아나운서는 절제된 톤의 미성美聲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여주었으며, 파업을 끝내고 정상 방송에 돌입한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의 중계는 현장의 열정과 감동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평창의 감동은 3월 9일부터 19일까지 2018 장애인 올림픽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로 이어진다.

## 컬링 팀김처럼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 KBS 최승돈

### 2018년 1월 9일 (파업 128일째)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한 달 남았다. 평창에 가지 못하게 될 것도 당연히 불사하고 녀 달 넘게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지켜왔다. 다행히 파업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젠 일말이라도 올림픽 중계방송에 투입될 가능성을 보고 개인적으로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지...

파업을 승리로 마치고 정상화된 회사에 일찍 복귀한 경쟁사 아나운서들은 홍보영상을 실컷 떠올리며 잔뜩 신이 난 모양. ‘제대로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러나 그동안도 큰 대회 출장자 명단을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고지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이런저런 이유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결국은 중계를 못할 때 못하더라도...

‘그래. 내 고향에서 올림픽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만약 중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종목을 중계해야 돼? 혹시 난 안 해도 되나? 알았어. 어찌 되든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142일 파업을 잘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왔다. 종목별로 지방에 있는 훈련장에도 다녀오고 정신이 없었다. 주어진 시간은 2주 남짓.

내가 맡은 종목은 컬링. 2014년 소치 대회 때는 세부종목 남/녀 두 개 중 여자 한 종목 출전에 3사 순차 중계를 해서 나는 달랑 세 번만 중계한 변두리 군소 종목. 그런데 이번에는 남/녀/혼성 전종목 출전에 순차 중계도 아니었고 종목마다 예선 풀리거나 한국 경기를 일일이 다 중계한다면, 매번 두어 시간씩이나 걸리는, 이 지독히 긴 경기를 최소 스물 다섯 경기나 중계해야만 했다.



해설자는 전임자의 추천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었지만, 충분히 검증할 방법과 시간이 없었다. ‘방송 시간이 참 긴데 부디 훌륭한 사람이기를...’ 결국 컬링 아재

브라더스, 아재 콤비의 일원이 된 서울시청 이재호 감독. 나이가 제법 들어 보이는데 가뜩이나 금방 하대를 잘 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자꾸 말을 놓으란다. 대략 일곱 살 아래. 둘 다 40이 넘었으니 아재는 아재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젊은 총각인 줄 아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억울하다면 자기 노안 때문에 같이 아재가 돼 버린 내가 억울하건만, 나 때문에 같이 아재가 돼 버렸다고 늘 투덜투덜.

하지만 경험 많은 승부사답게 치밀하고 철저했

다. 그리고 구변이 좋았다. 시청자들은 개념조차 잡지 못한 종목, 뭐가 공격이고 뭐가 수비인지도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는 경기를 그토록 긴 시간 중계하면서 매순간 다음 상황을 정확히 예측했다. 김영민 PD와 내가 애써 함께 찾은 ‘컬링노트’ 사용법을 2~3일 안에 완전히 숙지해서 입체적인 설명을 더한 것은 실로 압권이었다. 컬링 노트가 가끔 오답노트라 불릴 때가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대부분 선수들의 작전 수행이 결과적으로 작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의 일이었다.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채택된 혼성(2인제) 경기는 대회 개막 하루 전에 시작돼 우리나라 전체 선수단에 첫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 의성 훈련원에서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중계석에 올려놓고 중계를 시작했다. 리우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선수를 찍었던 카메라라고 하니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했던, 그래서 찍게 된 바로 그 사진을...

이기정, 장혜지 선수로 구성된 우리나라 혼성팀은 비록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컬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뒤이어 시작된 남녀 경기에서 남자팀은 거듭되는 패배 속에 매우 실망스럽게 출발했지만, 여자팀은 첫 경기에서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 세계 랭킹 1위 캐나다를 이긴 이래, 같은 날 일본과의 경기에서만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을 뿐, 그야말로 쾌조의 흐름을 이어갔다.



###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22)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종목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각광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준결승전이었는데 결승전 승리 이상의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 올림픽이었던 데다가 한일전이었고 설욕전이었으며 정말 조마조마했던 박빙의 승부였기 때문이리라. 이름 없이 사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성실한 삶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놀라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입증해 준 선수들에게 무한한 감사!

그런데 이렇듯 엄청난 일이 준결승전에서 일어났거늘 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 소설을 계속 쓰는 거라면, 이후 어떻게 더 크고 멋진 내용을 억지스럽지 않게 결말로 써낼 수 있을지...



‘컬링 아재 브라더스’ 최승돈 이재호

이 대회 최강팀이 틀림없었다. 팀당 네 명이 나서는 경기에서 세 명의 성공률이 포지션별 1위였다. 야구에 비유컨대 타율이 높으면 안타를 많이 칠 거고, 안타를 많이 치면 점수를 많이 낼 것이며, 점수를 많이 내면 이기게 된다는...

결승전은 10엔드를 채우지 못했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하지만 대한민국 컬링은 온 국민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이를 갖고 자꾸 시비하는 이재호 위원이 묻는다. 4년 뒤 베이징 대회 때는 내가 정년을 맞을 나이가 아니냐며, “택도 없다!”



###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

혹 컬링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투입되기 위해, 심지어는 100명도 넘는 출전 선수 명단을 뽑아 놓고 일일이 이력을 정리한 뒤 대기했다가 결국 방송하지 못하곤 했던 동료 아나운서들. 나름 사상 최고의 팀워크를 자부했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부르고 싶다.

김현태(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 스키점프), 이재후(쇼트트랙, 개폐회식), 이영호(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이광용(스피드스케이팅), 김승휘(피겨스케이팅), 강승화(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한상현, 이지연, 오승원, 김승희, 오연중, 김지원, 박소현(평창과 서울 스튜디오).

그리고 지난 세기부터 부족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돋우며 또 일깨워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열한 번째 올림픽 중계 그리고 개·폐회식 사회

- SBS 배기완

평창 올림픽 중계를 다녀왔습니다. SBS에서는 개·폐회식 배성재·박선영, 그리고 박광범, 박찬민, 정석문, 배성재, 조정식 캐스터와 박선영, 장예원 아나운서가, SBS스포츠에서 정우영, 윤성호 아나운서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개회식과 폐회식의 장내 사회와 피겨, 쇼트트랙의 중계를 맡았습니다. 제게는 동·하계를 합해 열한 번째이자 동계로는 여섯 번째입니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제 경험과 관록을 믿고 저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개·폐회식 진행을 의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나라에서는 처음이라 긴장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사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또 후배들을 키워야 하는 처지에서 부담도 많았습니다. 올림픽 기간 내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객관적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춘천 MBC 1년차 아나운서로서 작은 하숙방에서 88 서울 올림픽 중계를 보던 때가 떠오릅니다. KBS 원종관 선배가 올림픽 사회를 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싶어 부러워했는데 30년 뒤에 내가, 그것도 개회식과 폐회식 사회를 모두 맡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 개·폐회식이 기대 이상

으로 멋졌다!'며, '직접 사회를 보았으니 얼마나 감동적이었겠느냐?'고 물으시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경기장 중계석 위 작은 방에서 방송하는데다가, 시간에 맞춰 할 말만 해야 합니다. 심지어 갑탄사 등 다른 말은 절대 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입니다. 그러한 제약을 생각하면서, '시간에 맞춰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만 신경 쓰다 보니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성화 점화자인 김연아 선수를 소개할 때는 달랐습니다. IOC가 준 원고에는 김연아에 대해 '올림픽 챔피언, 전 피겨 세계 챔피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화를 점화하려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고 나타나자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 "여왕이 돌아왔습니다."라는 애드립을 구사했습니다. IOC가 문제 삼더라도 그 한 마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관중이 환호하는 것을 듣고서야 '김.연.아'라고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송승환 총감독과 양정웅 총연출도 '그 멘트가 최고였다!'고 하더군요.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난해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슬픔을 이겨내고 여자 피겨 싱글에서 7위에 오른 최다빈의 경기입니다. 최다빈의 표정이 '엄마, 나 할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

였습니다. 선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연기였습니다.

그럴 때면 '부국장 직책에 정



제갈성렬, 조해리, 이민지 해설위원과 함께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역으로 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시청자가 100% 느낄 수 있도록 중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항상 '그 사람이 중계하면 재밌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고민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고의 방송은 말을 줄이는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시청자들이 느끼고 판단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 제 방송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배와 후배들의 성공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송은 '말을 줄이는 작업'입니다. 제 생각과 같은 아나운서를 만나고 싶습니다.



## 평창. 그 위대했던 눈과 얼음의 축제를 마치며

- MBC 허일후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 획득 순간 허일후 캐스터와 안상미 해설위원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마무리되고 패럴림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 정선 일대에서 열린 동계스포츠 최고의

축제에 중계진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경험이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MBC는 개회식 박경추, 폐회식 허일후·이재은, 김나진, 김초롱, 박연경 캐스터가 선수들의 투혼을 전했고, 특히 김나진, 이재은, 김초롱 캐스터는 성화 봉송 주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담당했던 중계 중목은 쇼트트랙과 아이스하키, 봅슬레이였습니다. 현재 스포츠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까닭에 개막 직전까지는 평창 현지에서 뉴스데스크 평창 소식을 손정은 아나운서와 함께 전하기도 했죠. 평창에서 보냈던 3주. 그 추억을 다시

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평창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기온이 영하 22도였습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이라는 동계올림픽이지만 견디기 힘든 동장군의 위력은 대단하더군요. 미디어 숙소에서 나와 식당까지 걸어가는 5분조차도 발걸음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런 날씨와 바람 속에서 대회는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도움이이었을까요. 개회식 당일 놀랍게도 따뜻한 날씨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는 김연아 선수의 우아한 몸짓과 함께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캐스터로서 올림픽 중계를 준비하다보면 해설위원과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쇼트트랙 중계를 맡게 되면서 함께한 안상미 해설위원은 그런 면에서 정말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함께 선수들의 정보를 찾고, 훈련장을 직접 들러 컨디션을 점검하고, 경기 직후 선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선수들을 바라볼 때 선배의 입장에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기를 바라볼 때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전문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기의 흐

름을 읽는 것부터, 선수들 개개인의 장단점과 성격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중계 두세 시간 전에 도착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장 미디어센터인데요. 그곳에 가면 타사 선후배 아나운서들을 만날 수 있어 늘 기다려지는 곳이죠. 쇼트트랙이 열렸던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BS의 배기완 선배님과 KBS 이재후 선배를 지나가다 마주치면 정말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해외 여러 중계진 사이에서 아나운서 선후배들이 마주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역시 종합 대회에서 느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죠. 중계방송에 들어가면 때론 회사를 대표하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방송을 마치고 국제방송센터에서 만나 차 한 잔 함께하며 서로 응원을 보내는 아나운서 동료들이 있었기에 3주간의 긴 출장이 지루하지도 또 피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독 큰 종합대회가 많은 올해입니다. 패럴림픽 이후에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네요. 중계방송을 함께하는 아나운서 선후배 동료 여러분.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른 승부의 현장에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Zoom-in 이후재(전 KBS) 회원

## 각박해진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아 주고파

제4시집 <빠꾸기의 나들이> 출간, 쉽고 단순한 시를 쓰기에 정말 고통이 따른다



### 쉽게 읽히는 소박하고 천진한 시다

제 시집을 접하고 나서 '유머가 있고 전달이 쉬워 다 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연을 노래하는 윌리엄 워즈워드나 헤르만 헤세의 시는 쉽고 단순하다. 나는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쓸 때는 고통이다. 쓰고 나면 치유가 되지만, 독자가 쉽게 읽으며 시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면, 문학의 기능이 카타르시스 아닌가! '괴물' 같은 세상에 대중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 벌써 4번째 시집, 참 부지런하시다!

생존 연령이 연장된 시기에 고상한 취미를 갖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여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시를 쓰게 되었다. <스토리문학>이란 문학 월간지에서 활동하며 2006년 등단 후 2, 3년 주기로 시집을 출간했으니 잘 생각한 것 같다. 시는 나의 생명과 같다.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은 첫 번째 행복이고 아내의 손맛은 두 번째, 이웃의 인사를 받는 건 세 번째, 창밖에서 까치와 참새의 방문은 네 번째 행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가슴이 설렌다. 날마다 생각하고 읽고 굽적거리다. 앞으로 제5시집도 내야겠다고 각오를 다진다.

### 국문과 출신이신데, 원래 시인이 꿈이었나?

대학 시절 지도 교수가 미당 서정주 선생이시다. 그러나 스스로 뛰어난 문재의 소유자는 아니다 싶어 졸업 후 국어 교사를 거쳐 KBS에 입사했다. 그런데 1973년 가을 졸업 후 10년 만에 남산 KBS 현관에서 방송 출연하고 나오는 스승과 우연히 마주쳤다. "자넨 여기 웬일인가?" 하시기에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게 "결혼했느냐, 상대는 정해졌느냐?"고 물으신 후 "주례는 내가 맡겠네. 그리고 시도 써보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나서야 첫 시집을 냈는데, 스승님 생전에 못 낸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KBS 다닐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었다.

<빠꾸기의 나들이>를 펼쳐 들면 누구나 빙그레 미소 지을 것이다.

시장 바닥이 몰강한 이유는 / 이천 원에 따끈한 순대 한 접시와 / 막걸리 한 잔 따라 나와 / 시장기를 때워 주기 때문이다 / 저기 골목집 앞을 보게 / 시장 후보자, 족발 한 봉지 팔아 주고 / 아줌마의 젖은 손을 / 한참 동안 만지고 있잖아 /

- 이후재 시 '시장' 전문全文 (65쪽)

문학평론가 이명재 중앙대 명예교수는 '자연 친화 의식, 우화적인 시편들로 각박해진 현대인에게 잃어버린 동심을 되살려 주고 옛 시골의 질박한 삶과 요즘 도시의 대비 및 언어유희적인 문장이 재미를 던져준다'고 평했다.

선배님은 세종문학상 시상식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 날 인터뷰 약속을 하고, 3월 초에 덕 근처 여의도의 커피숍에서 만나 뵈었다. 서울에서 사실 때나 대구에서 사실 때나 클럽 모임과 행사에 빼놓지 않고 참석하시고, 연회비도 늘 제일 먼저 내주시는 한결같은 모습의 선배님을.

글 / 편집장 황인우(전 KBS)

### 어떻게 방송계로 진출하게 되었나?

경북 상주 출신이다. 시골 청소년들에게 라디오 전성기 시절 아나운서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1964년에 KBS 아나운서 모집에 응시했는데 장기범 실장에게서 '군대나 마치고 오라'는 말을 들었고, 제대 후 문경여중고 국어교사로 근무하며 1970년 강창선 실장 시절에 다시 시험을 쳤는데, 1970년 7월 7일 완공된 경북고속도로 덕을 봤다. 그게 뚫리지 않았다면 시험 보러 다니지도 못했을 것이다.

### 방송국 생활은 어떠했나?

1970년 9월 아나운서로 입사, 청주와 강릉을 거쳐 당시 서울 중앙방송국으로 왔는데 경상도 억양을 지적받았다. 그리고 시골 출신이라 스포츠를 너무 몰라 스포츠 중계를 못하는 걸 약점이라 생각했고 내레이터 정도로는 너무 단조로워 3년 후 PD로 전직했다. 사회교육국, 홍보실, 방송문화연구소를 거쳤고 출판부장과 원주방송국장을 지냈다. 이태올로기를 분석하며 1시간 토론했던 <교양대학> 이란 프로그램은 매우 힘들었기에 공부하며 제작했고 훗날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토대가 되었다. 2001년 6월 정년퇴직 후에도 2년간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KBS에서 33년간 근무했다.

### 가곡 중에 작시하신 것도 많던데...

대학 동창생 중에 작곡가, 음대 교수가 많다. 그들이 시를 써달라 부탁해 매년 한, 두 편씩 쓰게 되는 것 같다. 친구인 작곡가 이안삼의 '꿈길', '강나루'를 비롯해 김경양의 '작은 새', '돌감시대', 한정임의 '부활', 이선우의 '하늘 공원의 역새', 이복남의 '뉴욕 고양이' 등이 있다.

### 어떻게 시심을 일깨우나?

자연은 최고의 스승이다. 삼라만상은 지나는 사람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 경쟁 속에서 그 아름다운 소리, 속삭임을 못 듣는다. 나는 관악산에 자주 올라 자연과 벗하며 시상을 일깨우곤 한다. 그래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시가 많다. 시가 잘 안 풀릴 때는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스토리문학>을 통해 배운 것이다.

### 현재 활동 상황을 소개해 달라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자문위원,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한국언론인협회 이사, 그리고 세종대왕의

둘째 형님인 효령대군 19대손으로서 효령대군기념사업회 재단 이사로 활동 중이다.

### 아나운서클럽 모임에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까닭은?

아나운서는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본향이다. 네 번의 정례 모임은 아나운서의 자존심이고 그것을 살려내는 활력소다. 여러 괴물들이 날뛰는 세상 속에서 모국을 지키는 마지막 캠프가 아나운서이다. 클럽 회보는 우리의 상징이요, 구심점이다. 임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임국희 회장님의 시조카인 노스페이스 성기학 회장님의 후의로 우리 클럽 회원이 다녀온 재작년 봄 창녕 성씨 고가 여행이다. 양파 시배지 설명문을 읽으며 선각자들의 지혜에 감탄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반도가 짓밟힐 때 민초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양파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거기서 이번 시집 89쪽(제22호 게재)에 실린 줄시추詩 '양파의 귀'를 뽑아냈다. 향그러운 땅으로 초대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양파 모형 비석 옆에 '양파의 귀' 바윗돌을 세운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고맙습니다

### 클럽 발전기금 내주신 분



3월 10일까지  
입금순



황인우(전 TBC)  
30만 원



김병천(전 KBS)  
30만 원



이계진(전 SBS)  
50만 원

### 축하합니다

- 한석준(전 KBS) 4월 6일 사진 작가와 혼인
- 권혁화(전 MBC) 3월 17일(토) 오전 11시 Y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에서 딸 미선 양 혼사
- 유연수(전북CBS) 3월 17일(토) 전주 The-K 웨딩홀 교원공제회관에서 직장인과 혼인
- 김 환(전 SBS) 2월 26일 득녀
- 김성길(전 KBS) 2월 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녀 경은 양 혼사
- 김정현(부산 CBS) 1월 27일 내과 의사와 혼인

### 조의를 표합니다

- 국혜정(KBS) 3월 7일 시부상
- 이정자(전 MBC 37기) 1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

### 수고하셨습니다

- 배현진 3월 7일 MBC 퇴사
- 김 환 1월 9일 SBS 퇴사

KEB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 한국아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